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7139>

한파에 세밑 온정까지 식었나... 복지시설 '쓸쓸'

경기 침체 등 영향 후원과 기부도 크게 줄어

데스크승인 2013.12.11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계속되는 불황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소외된 이웃을 도우려는 온정이 싸늘해져 가고 있다.

Not only because of economic factors, but also by hardness of heart, people are less willing to help their neighbors in need.

엿친데 덮친격으로 난방비까지 오르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힘든 겨울나기가 예상되고 있다.

Heating costs have risen making some orphanages harder to get through winter.

영·유아 40 명과 청소년 70 명 등 110 명이 머물고 있는 홍익아동복지센터는 12 월 들어 후원자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 따뜻한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Hongik orphanage where 40 infants and 70 teenagers stay, hasn't been visited by any donators yet this month (December), but is waiting for generous donations.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필요할 때만 아껴서 보일러를 켜고 있지만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연말을 앞두고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비쳤다.

"We turn on the heater only when it's really needed but can't afford heating costs. And it's almost the end of the year, but we haven't received any money or gifts," said an administrator.

그나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손꼽으며 위안을 삼고 있다. 원어민 강사로 구성된 사회공헌단체인 '제주퓨리재단'(회장 다니 나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방문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Though the kids themselves will find some comfort this Christmas since "Jezu Furey", which is a charity group that of consists of foreign teachers, made a promise last year to visit the orphanage with gifts.

후원과 기부가 똑 끊긴 요양시설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The situation is same for a local nursing home.

기초수급자 50 명 등 노인 85 명을 보호하고 있는 성이시돌요양원은 난방비 등 겨울을

나기 위한 운영비는 부족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Saint Isidore nursing home, which cares for 85 seniors can't afford the cost of heating the home this winter.

성이시돌요양원 관계자는 "지난해도 어려웠지만 올해는 기부와 후원이 더 줄어든 것 같다"며 "치약·칫솔, 수건 등 노인들을 위한 생필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is year we have less donations compared to last year. We'd be happy if we can even get basic products like toothpaste, toothbrushes, and towels," an administrator said.

온정과 관심이 메말라가는 팍팍해진 세태를 반영하듯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계'도 식어가고 있다.

"Love's thermometer" by Jeju Community Chest Drive has 'cooled down' as well.

제주공동금회는 올해 25억 4000만원을 모금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They built a thermometer tower on the 20th of November to raise 2,540,000,000won this season.

10일 현재 모금 기간은 4분의 1이 지났지만 답지한 성금은 2억 4942만원으로 저조해 온도탑 수은주는 9.8도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도까지 오른 것이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Today, the 10th of December, a quarter of the time has passed, and yet they have only raised 249,420,000won. And the weather's not cooperating either as the mercury only rose up to 9.8 degrees centigrade which is pretty low compared to last year's 11.4 degrees centigrade.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인지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며 "한파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Maybe it's because the economy still hasn't recovered yet and because the weather's getting colder, that donations have decreased. Neighbors who are suffering from the cold and hunger need Jeju community's help and support," said an administrator.